

“도심 속 특별한 연말”...지역 호텔 프로모션 풍성

유담부티크호텔&레지던스, 럭셔리 스위트룸·디너 뷔페 다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겨울 룸패키지·아트 컬렉션 로비 선풍

지역 호텔들이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모션과 특색 있는 패키지를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광주 유담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연말 맞춤형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해피 크리스마스 이브 & Year end 디너 뷔페’를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31일 두 차례 열리는 디너 뷔페는 엄선된 재료와 정성이 담긴 메뉴들로 구성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랍스터테일, 관자&연어구이가 개별로 제공되며 안심스테이크, 다양한 고급 요리와 달콤한 디저트, 각종 라이브 메뉴도 맛볼 수 있다. 또한 샴페인 화이트와인 1잔이 무료로 제공돼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12월31일에 열리는 디너 뷔페는 안

심스테이크와 랍스터테일 개별 서비스, 스페셜 뷔페 메뉴와 함께 레드와인이 1잔씩 무료로 제공된다. 디너 뷔페는 패키지 상품으로 예약 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예약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11월 말부터 연인들을 위한 스위트 로맨스룸과 스위트 파티룸은 예약이 마감됐다.

연인들을 위한 ‘지금 이 순간 폰오프 패키지’는 스위트 로맨스룸 1박, 2인 조식 뷔페, 폰오프 상주점 할인권과 스킨 케어 세트로 구성된다.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숙박이 가능하며 스위트 로맨스룸 내 자쿠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투숙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펜트하우스에서 즐기는 따뜻한 겨



유담부티크호텔&레지던스는 연말을 맞아 ‘해피 크리스마스 이브 & Year end 디너 뷔페’를 선보인다. 랍스터테일, 안심스테이크 등 정성이 담긴 메뉴들로 구성했다. <유담그룹 홍보팀 제공>



울 호캉스를 원한다면 ‘윈터 호캉스 인 펜트하우스 패키지’를 추천한다. 31층 최상층에 위치한 아너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럭셔리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6인 투숙이 가능한 아너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객실 내 자쿠지, 사우나, 히노키탕,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대형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어 연말 파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와인과 과일&치즈 플레이트가 더해져

연말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준다. 이 밖에도 호텔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설치해 연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트리 장식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 숙박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는 ‘하트 워밍 홀리데이’와 ‘개츠비 홀리데이’ 룸패키지를 선보인다.

하트워밍 홀리데이는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모두 따스해지는 호캉스로

따뜻한 음료와 사우나가 제공 돼 겨울의 추위와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츠비 홀리데이는 객실에서 모엣 샴동 샴페인과 함께, 스테이크와 랍스터 파스타 등 총주방장의 스페셜 메뉴로 소중한 사람과의 프라이빗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조식 뷔페와 사우나도 제공된다.

디오니소스 카페&바에서는 1920년대의 자유로움과 낭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위대한 개츠비 애프터는 티 세트’를 새롭게 내놓았다.

신선한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샴페인 초콜릿, 진한 초콜릿 무스 등 상류층 파티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로 구성했다.

호텔 로비는 1920년대 황금기 파티장을 연상케 하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미술관급 아트 컬렉션으로 구성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추억을 담아 볼 수 있다. /정은솔기자

“최대 70% 저렴” 광주신세계, LF그룹 할인전

본관 1층이벤트홀 18개 브랜드 참여

패션그룹 LF에서 겨울 상품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

(주)광주신세계는 19일 “오는 25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LF패션 그룹전’을 열고 닥스와 바버 등 총 18개 MD가 최대 70%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바버와 닥스 외에도 질스튜어트 여성, 바네사브루노, 라움 에디션과 미입점 브랜드인 바쉬의 제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이자 왁스 재킷으로 유명한 바버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남성 바버 키팅 재킷을 20% 할인된 5만5천20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이월상품들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질스튜어트 여성(사진)은 울게시미어 혼방 카디건을 4만300원에 판매하는

등 이월상품들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다. 특히 질스튜어트 여성은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양말을, 바네사브루노에서는 50만원 이상 구매고객 선착순 30명에게 핸드크림을 제공한다.

닥스 구두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이월상품에 대해 최대 70% 할인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인기 신사와와 숙녀화를 10만원대 초반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닥스 숙녀와 닥스 신사도 행사에 참여한다. 닥스 숙녀는 인기 제품인 패



딩 점퍼를 8만9천500원에, 닥스 신사는 정장과 점퍼, 코트류 중 이월상품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40%, 정상 상품은 20%까지 할인에 나선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연말을 맞아 닥스와 바버 등 인기 브랜드를 가진 LF그룹에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선물을 찾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홈플러스, 올해 마지막 ‘홈플러스대란’ 연다

삼겹살·한우 등 최대 50% 저렴

홈플러스가 올해 마지막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전개한다.

홈플러스는 19일 “오는 25일까지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열고 딸기, 삼겹살, 한우 등 주요 먹거리를 반값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홈플러스대란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격 혜택을 앞세워 행사 첫 주부터 마트 오픈런 열풍을 일으키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대란이 시작된 11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 3주간 점포별 매출이 최대 118% 증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맥돼 삼겹살/목심(100g)’은 마트에서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로 50% 할인해 1천190원에 내놓고, 겨울 대표 인기 과일인 ‘10Brix 햇딸기(500g)’는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9천900원에 판다. 이와 함께 23



-25일 단 3일간 ‘농협안심한우’ 구이류 전 품목은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맞아 AI가 고른 홈파티에 딱 좋은 맛과 가격을 선사하는 ‘메리 홈플러스’ 행사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스테이크요리를 위한 ‘아메리칸 스테이크쇼’에서는 ‘미국산 토마호크’를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한 4

만7천800원에 판매한다. 적াই톨, 부채살, 채끝 등 다양한 부위의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도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한다. 이 밖에도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서 1+1 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연말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홈플러스대란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